



서동용 의원은 '함께 이겨내는 2021. 서동용 인사드립니다' 손팸말을 들고, 컨테이너부두 사거리와 금호대교 등에서 12. 30~ 1.5일까지 영하의 날씨에도 시민들에게 인사드리는 시간을 가지며 감사와 코로나 극복, 2021년 희망을 향한 초심의 의지를 다졌습니다. 시민들은 '의원이 된 후에도 겸손한 마음으로 추운날씨에 인사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훈훈해진다며' 응원을 보냈습니다.

서동용 국회의원 신년사

지난 한 해는 안녕을 묻는 인사가 무색할 정도로 그 어느 때보다 힘든 한 해였습니다. 이러한 시기를 함께 버텨낸 광양 · 순천 · 곡성 · 구례 주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러움 가운데 상과와 희망을 본 해이기도 했습니다. 공공주택특별법을 통과시켜 시민의 내 집 마련 꿈을 지켰습니다. 예결위 소위원으로 우리 구례 · 곡성 · 광양 · 순천분 이니리 진남의 곡간도 낙낙히 채웠습니다. 모두 시 · 군민 덕분입니다. 누구도 소외되는 이 없는 따뜻한 지역공동체를 위해 여러분과 함께 한걸음 한걸음 계속 나아가겠습니다.

새해에는 보고 싶은 이와 맘 편히 밥 한 끼 하는 소중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우리의 일상을 되찾는 데 모든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런 마음과 뜻을 담아 주민 여러분께 큰길 올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서동용 의원님, 약속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5년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주거 안정 보호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서동용 국회의원

“5년 공공임대주택 우선 분양 전환 분쟁 논란 해소될 것”

서동용 의원이 발의한 5년 공공임대주택의 우선 분양 전환 자격요건 명시 및 사업자 간 공공임대주택의 매매요건을 강화해 임차인 권리를 보장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연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공 임대아파트는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정부가 건설사에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해 짓는 아파트로서 이 중 5년 공공 임대아파트의 경우 일정한 조건을 지켜 5년간 거주하고 일정 조건을 충족한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하게 되어있다.

그러나 최근 공공 임대아파트를 건설한 건설사와 이들로부터 임대 기간 도중 공공 임대아파트를 매입한 임대사업자가 기존 임대주택 임차인 중 우선 분양자에게 낮은 가격에 분양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임차인의 우선 분양 자격을 박탈하는 등의 분쟁 사례가 발생해 문제가 되고 있다.

서동용 국회의원은 이는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우선 분양의 자격조건을 정확하게 규정하지 않아, 임대사업자가 자의적으로 세입자의 분양 자격을 평가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서동용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우선 분양 전환 대상이 되는 임차인 자격요건을 명확화하고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



서동용의원이 공약하고 21대 국회에서 대표발의한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주거 안정 보호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감사하는 송보 오네트 등 임대아파트 주민들이 시내 곳곳에 감사 현수막을 걸었다.

주택을 제3자에게 매각 시에도 우선 분양 전환 시와 동일한 절차와 분양 전환 가격으로 매각 가격을 산정 △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다른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한 법률안 심사과정에서 과태료 조항을 신설해 주택사업자가 임차인에게 분양 전환 가격을 초과한 가격으로 제3자에게 매각할 때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2배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공공주택사업자와 임차인 사이에서 우선 분양 전환 자격에 대한 분쟁 소지가 발생하면 이를 조정위원회회를 통해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법안 통과 소식이 전해지자 광양의 공공임대아파트 단지 주민들은 일제히 “서동용의원님! 약속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현수막을 시내 여러 곳에 게첨했으며, 전국의 임대아파트에서 화분을 보내고, sns에 감사와 응원 글을 올렸다.



서동용 의원은 1. 1일 해돋이를 광양항 한국국제터미널 802호(24열) 60M 크레인 위에 올라가 작업자를 격려하고, 함께 해돋이를 바라보며 관계자와 광양항의 발전을 위한 의견 청취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시민들은 '현장에서 답을 찾는 모습이 보기 좋다'며 응원했습니다.

코로나 제3차 피해지원금 지급! (11일~)
고용취약·소상공인 396만명 5.6조원

더불어민주당
전라남도당

서동용 의원 “광주전남 주요사업 국비 예산 증액 성과”

전남 이차전지, 그린 수소 등 미래먹거리 예산

광주형일자리 사업, AI 인공지능, 데이터 산업 증액

예산확보 서동용 의정활동

2021년 전남도 국비 예산 7조 6,671억원,
광양시 국·도비 4,568억원 순천시 국·도비 5,553억원
곡성 국·도비 1,788억원 구례 국·도비 4,290억원

국회 예결위서 전남·광주 대표의원으로 맹활약!!
전라남도과 광주 주요 사업예산, 꼼꼼하게 챙겼습니다.




6

서동용 의원은 "내년 국비 예산 증액을 통해 광주전남 지역의 미래 먹거리 산업 기반을 다지는 데 초석이 됐다"고 밝혔다.

서동용 의원은 지난달 2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

회 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전남광주지역을 대표해 기재부 등 국비 확보에 전력을 쏟아왔다"며 이렇게 말했다.

서 의원은 또 "2021년도 예산에는 전라남도과 광주광역시와 요청한 국

비 요청 사업이 최대한 반영되어, 구상한 핵심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며 "친환경 리튬이차전지 실증센터 구축, 3MW 수전해스택개발과 풍력 연계 그린 수소 실증사업 국비 예산이 확보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재·부품 공정혁신 시물레이션 센터구축, 파이프랙 안전성 확보사업 예산이 증액됐다"며 "바이오헬스 융복합 지식산업센터 구축, e-모빌리티 공정 고도화 기반 구축, 433MHz 기반 드론 운용 통신기술, 저압직류 핵심기기 인증지원센터 기반 구축사업 등 전남지역의 미래 먹거리와 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서 의원은 "광양항 배후단지 확대를 위해 세풍 산단 부지 매입, 광양항 3단계 투기장 항만재개발사업, 여수항 재개발 구역 지정 타당성 연구용역 예산 등이 다수 증액됐다"며 "광주가 AI 산업의 중심도시로 나아갈 수 있는 R&D 다수의 사업 확보의 성과를 이뤄냈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전남광주 지역의 미래 먹거리 사업의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국비 예산을 확보하는 데 집중했다"며 "현재 전 세계적으로 촉망받는 이차전지, 그린 수소 등 신산업에 대한 기반 및 실증센터 구축 등 R&D 사업이 다수 배치됐다"고 밝혔다.

“5년 공공임대주택 우선 분양 전환 분쟁 해소 기대”

임차인 주거 안정 보호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서동용 발의

오랫동안 끌어오던 공공주택 특별법 등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5년 공공임대주택 우선 분양 관련 분쟁으로 오랜 기간 고통을 겪고 있는 임차인 분들의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동용 의원이 발의한 5년 공공임대주택의 우선 분양 전환 자격요건 명시 및 사업자 간 공공임대주택의 매매요건을 강화해 임차인 권리를 보장하는 ‘공공주택 특별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지난 달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공 임대아파트는 서민들의 내집 마련을 위해 정부가 건설사에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해 짓는 아파트로서 5년 공공 임대아파트의 경우 일정한 조건을 지켜 5년간 거주하고 일정 조건을 충족한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하게 돼 있다.

하지만 최근 공공 임대아파트를 건설한 건설사와 임대사업자가 기존 임대주택 임차인 중 우선 분양자에게 낮은 가격에 분양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임차인의 우선

분양 자격을 박탈하는 등의 분쟁 사례가 발생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우선 분양 전환 대상이 되는 임차인 자격요건 명확화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주택을 제3자에게 매각 시에도 우선 분양 전환 시와 동일한 절차와 분양 전환 가격으로 매각 가격 산정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건설 임대주택을 다른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한 법률안 심사과정에서 과태료 조항을 신설해 주택사업자가 임차인에게 분양 전환 가격을 초과한 가격으로 제3자에게 매각할 때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2배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서 의원은 “그동안 제도 미비로 우선 분양 전환 대상 자격요건에 대한 해석이 명확하지 않아 사업자와 임차인 간에 빈번한 분쟁과 혼란을 겪어왔지만 이번 개정안 통과로 이런 부분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서동용 의원, 국감 우수의원 선정 2관왕

당 선정·쿠키뉴스선정 '우수의원'

서동용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이 더불어민주당 2020년도 국정감사 우수 의원으로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민생회복·개혁완성·미래전환을 위한 정책제안과 대안 제시를 통해 국회의원으로로서의 역할을 인정해 선정했다.

서 의원은 제21대 국회 교육위원회 첫 국정감사에서 △나경원 전 의원 아들의 서울대 특혜 의혹 △국립대병원 불법 의료인력(PA) 운영 실태 △코로나19로 인한 청소년 심리불안 문제 △지역공공의료의료 위한 지

방 의대의 서울 편법 운영 문제 △국립대 교수 미성년 공저자 논문 실태 △사립대학 외부회계감사 부실 등을 지적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다.

또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법’, ‘평생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 등 교육분야에 핵심 법안들을 대표 발의 하는 등 지역의 균형발전 및 미래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교육 환경 조성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서 의원은 “당에서 수여하는 상을 받게 돼서 매우 영광스럽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진정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동용 “구례군, 3차 도시재생뉴딜 선정 환영”

서동용 의원은 “구례군이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0년 3차 도시재생뉴딜 신규사업’에 최종 선정된 것을 환영한다”고 지난달 22일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에 구례군은 지리산·섬진강·넓은 들판의 3대(三大)와 수려한 경관·넘치는 소출·넉넉한 인심의 3미(三美)으로 대표되는 구례 특화자원을 활용한 사업을 통해 지역특화산업 육성, 전원도시 경쟁력 회복, 공동체 활성화, 주거복지, 5일시장 현대화 사업 등을 연계하는 방안을 제안해 선정됐다.

향후 5년간 구례군 구례읍 5일시장 일원에는 국비 150억원을 포함한 271억원의 마중물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며 이후 지자체, 부처협업, 공기기업 투자, 기금 등 총 537억원이 투입된다.

서 의원은 “이번 도시재생뉴딜 선정은 군민과 구례군, 그리고 관계기관 등이 함께 최선을 다해 이룬 성과”라며 “지난 여름 수해로 침체됐던 지역 전반에 새로운 활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밝혔다.



시계방향으로 ① 코로나19로 비대면 화상회의로 많은 회의와 면담, 소통하는 서동용 의원 ② 어려움을 호소하는 지역의 소상공인들의 찾아 이야기를 듣는 서동용 의원 ③ 1.4일 보좌관만 대동하고 현충탑을 참배하는 서동용 의원 ④ 광양곡성구례 지역위 사무소를 순회하며 2-3인 릴레이 면담을 이어가는 서동용 의원

서동용 의원, “나경원 아들 연구포스터 부당 저자표시 인정” …서울대 연구진실위

“나 전 의원이 아들 참가 요청했다는 사실 확인된 것”

공정 서동용 의정활동

나경원 전 의원 아들의 서울대 특혜 의혹
집요하게 파고들어 결국 밝혀냈습니다.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

“엄마 찬스가 아니었다면 아들이 서울대 연구실에서 실험할 수 없었던 것은 물론, 연구물에 부당하게 공동저자로 표기되지 않았을 것”

15일

4. 결론

- 이상을 종합하면, 피조사자들의 행위가 연구진실성 위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은 아래와 같다.
- 대상문헌①
 - 김OO를 저자로 표시한 행위 : ‘부당한 저자표시’(연구윤리지침 제12조 제2항 제7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OOO를 저자로 표시한 행위 : ‘부당한 저자표시’(같은 호)에 해당한다.
- 대상문헌②
 - 김OO를 저자로 표시한 행위 : ‘부당한 저자표시’(같은 호)에 해당한다.
- 박사학위 논문의 일부를 학회 포스터로 발표한 행위 : ‘부당한 중복게재’(같은 항 제6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위반의 정도에 관하여 보면, 대상문헌들은 논문이 아니라 1쪽 분량의 포스터인 점, 대상문헌①과 관련하여 OOO이 학회 투고를 위해 분량과 형식을 맞추는 작업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대상문헌②와 관련하여 김OO가 단순 데이터 검증 작업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반의 정도는 경미하다.

서울대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가 나경원 전 의원의 아들이 연구포스터에 저자로 표시된 것은 ‘부당한 저자표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동용 의원은 지난 10월 15일 “서울대가 국회 교육위원회에 제출한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 결정문에 따르면 나 전 의원의 아들이 문제의 논문 내용 중 ‘비(非)실험실 환경에서 심폐 건강의 측정에 대한 예비적 연구’에 저자로 표시된 것은 ‘부당한 저자표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구체적으로는 ‘나 전 의원의 아들은 이 문헌 저자의 논문에 포함된 데이터 검증을 도와줬으나 이는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요하지 않는 단순작업으로, 이 정도의 기여는 저자로 포함될 정도의 기여라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한 내용이 포함됐다”고 덧붙였다.

또 해당 결정문에는 나 전 의원의 아들이 서울대 의대 의공학 연구실에서 연구를 수행하게 된 경위로 ‘피조사자 윤OO는 김OO의 어머니로부터 김OO의 엑스포(미국 고교생 대상 경진대회) 참가를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의대 의공학 연구실에서 연구를 수행하게 했다’라고 나와 있다.

서 의원은 “결국 나 전 의원이 아들의 미국 경진대회 참가를 위해 국립대학 의대 교수에게 이를 요청한 사실도 확인된 것”이라며 “나 전 의원은 아들과 관련한 연구진실성 문제에서 어떤 위법도 없다고 결론났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연구진실위의 결정문을 보면 부당한 저자표시로 결론을 내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나 전 의원이 해당 의혹을 제기한 시민단체 관계자와 기자를 고발하는 등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엄마 찬스가 아니었다면 아들이 서울대 연구실에서 실험을 할 수 없었던 것은 물론, 연구물에 부당하게 공동저자로 표기되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해당 결정문에 아들의 미국 고교생 대상 경진대회 참가를 도와 달라고 부탁했다는 점에서 서울대 시설의 ‘사적사용 부당성’에 대한 서울대의 추가 조사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서동용,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 위한 영상토론회

‘국제정원박람회와 순천의 미래’ 주제로 전남도와 공동 개최



서동용 의원은 지난달 11일 전라남도과 함께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개회를 위한 영상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와 순천의 미래’라는 주제로 정원정책, 산업, 법안 관련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했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화상회의로 진행됐다.

토론은 주제발표와 패널토론을 통해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방향성과 지원 특별법 제정에 대한 열띤 논의가 이루어졌다.

▲국가정원의 미래, 정원의 새로운 패러다임(국립수목원 진혜영 센터장) ▲순천만 국가정원과 문화·산업의 확장성(중부대학교 박은영 교수)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 특별법’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자연환경국민신탁 전재경 박사)의 주제발표가 진행되었으며, 세종수목원 이유미 원장, 영남대학교 권진욱 교수, 순천시 국가정원운영과 이기정 과장이 토론자로 생산적인 논의를 이어갔다.

서 의원은 “대한민국 국가정원 1호인 순천만 국제 정원박람회가 세계에서 으뜸가는 박람회 장으로 거듭나길 희망한다”며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꿈꾸는 한국판 그린뉴딜 사업의 모범사례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서동용 의원,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 참여’

1단 멈춤! 2쪽 저쪽! 3초 동안! 4고 예방!



서동용 의원은 허석 순천시장의 지목을 받아 행정안전부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실천문화 정착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에 참여했다.

챌린지는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망사고 발생이 늘어남에 따라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어린이보호 최우선 문화정착 등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추진됐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아이들이 마음 놓고 다녀야 하는 가장 안전해야 할 장소이다. 하지만 아이들은 이곳에서조차 위험에 처하곤 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만큼은 아이들이 차 걱정 없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어야 한다.

서 의원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교통신호를 잘 지키고, 항상 주변을 살펴주시고, 조금 빠르게 가겠다는 생각보다 아이들이 씩씩하게 손을 들고 길을 건널 수 있도록 여유를 가져 주십시오. 기본적으로 사소한 원칙들이 우리 아이들을 지킨다”고 말했다.

이어 “1단 멈춤! 2쪽 저쪽! 3초 동안! 4고 예방! 아이들의 해맑은 미소를 지켜줄 수 있는 구호입니다. 잊지 말고 기억 해 주시길”을 당부했다.

다음 챌린지 참여자로 김순호 구례군수, 박자영 학부모 네트워크 광양회장, 조정자 광양교육지원청장을 지목했다.

김정태 보좌관 무방비 인터뷰



(21대 국회개원 이후 숨가쁘게 달려온 2020년 하반기를 뒤돌아보며 김정태 보좌관에게 기습적으로 잠시 쉬어가는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매주 주말 한번도 거르지 않고 지역 활동을 했습니다. 서동용 의원님이 작년 7개월의 임기 동안 딱 하루를 일정없이 보냈는데요. 그날은 코로나로 인해 갑작스런 ‘의원회관 소개령’이 있었던 날이었습니다.

Q : 요즘 날씨가 많이추운데 따뜻한 차 한잔 대접하고 싶은 사람은?

A : 국제라이온스 355-B3지구 방동현 총재입니다. 작년 8월 구례를 뒀던 엄청난 수해의 복구에 헌신적으로 나서 주신 정말 고마운 분입니다. 수마가 쓸고 간 참담한 구례 장터를 돌아보다 서동용 의원께서 어렵게 청한 봉사와 기부 부탁을 흔쾌히 수락해 주셨습니다. 바로 다음날 라이온스 자원봉사자가 도착하여 복구에 나서주었는데요. 자원봉사자 총 2000명, 물품기부 3000만원, 자장면 1000그릇, 집짓기 봉사 구례 집중 등 해아리기 어렵네요. 사업을 진두지휘하신 총재님의 열정과 라이온스 봉사자들의 땀방울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Q : 2021년 서동용의원이 가장 관심 가지고 추진하는 활동은?

A : 광양항 활성화, 전남 동부권 의과대학 및 대학병원 유치, 광양보건대 정상화 등 지난 해부터 서의원께서 꾸준히 관심을 갖고 진행해 오던 지역 현안들이 많은데요. 굳이 하나를 꼽자면 ‘광양항 활성화’입니다. 컨테이너 물동량 정체의 늪에 빠져 주춤거리는 광양항을 ‘스마트 자동화 항만’으로 탈바꿈하고 항만배후단지 확충과 과감한 인프라 투자로 ‘고부가가치 복합항만’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입니다. 요즘 서의원께서 보좌진과 가장 많이 이야기 나누는 주제가 ‘광양항’입니다.

Q : 끝으로 바쁜 일정으로 많은 시간을 함께하기 힘든 가족들에게 한마디?

A : 농사를 짓고 있다가 갑자기 보좌관으로 일하게 되어 남은 농사일을 부모님이 많이 감당하게 되었는데요. 바쁘다는 핑계로 자주 찾아뵙지 못한 것이 죄스럽습니다. 그리고 늘 잘 챙겨 주는 아내 “미향씨!! 사랑해요”

Q : 최근 웃음 지을만한 가벼운 에피소드 한 가지 말씀해 주신다면?

A : 서동용 의원님의 몸매를 보면 상상이 ^^ 되지 않으실 수 있지만, 태권도 선수 출신입니다. 아주 가끔 발차기 품세를 보여 주시는데... 글썽요? 더 이상의 언급은 자제하겠습니다.

Q : 시민들께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A : 국회의원이 지역에 보이지 않는다는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4개 시군에 걸친 넓은 지역구 탓도 있겠지만 실은 국회 일정이 녹록치 않습니다. 매일 새벽 6시 30분에 집을 나서고 대체로 밤 10시가 넘는 시간에 귀가합니다. 예결위 소위 활동 때를 제외하고는

[새해 포부] 정현복 광양시장

“미래 신산업 육성하고 민생경제 활력 불어넣겠습니다”



광양항, 아시아 스마트항만으로 육성
소상공인·중기 정책 발굴, 생애주기별 공감 복지 확대

“새해에는 일자리와 지역경제 회복, 미래 신산업과 체류형 관광 산업 육성,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중점을 두고 시정을 운영하겠습니다.”

정현복 광양시장은 지난 5일 비대면 영상브리핑을 통해 “시민과 함께 ‘코로나19’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새로운 30년, 더 큰 광양을 향해 나아가자”며 “코로나 이후 격변에 대응해 일상과 경제를 회복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광양시는 지난해 정부의 산단 대개조 사업에 선정된 광양국가산단과 광양항 배후단지를 저탄소 지능형 소재 부품 산단으로 특화해 육성한다. 광양항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접목해 자동화·기

능형 항만 운영시스템을 갖춘 아시아 최고의 스마트 복합항만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소상공인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도 추진한다.

비대면 수요가 더 늘 것으로 보고 모바일 플랫폼 구축과 소상공인 공공 배달앱 도입을 지원하기로 했다. 국내 유턴 기업과 협력사 동반 이전 기업 등 기업 특성에 따른 맞춤형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정 시장은 “소상공인, 중소기업, 전통시장 지원정책을 촘촘하게 추진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발굴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복지 정책도 확대한다.

상반기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개관하고 아이키움센터,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등 차별화된 보육서비스를 제공한다. 광양읍에 건립된 공공실버주택은 2월부터 입주하고 실버주택 내 노인복지관도 상반기에 문을 열기로 했다.

정 시장은 “복지는 시민들의 당당한 권리”라며 “생애주기별 공감 복지를 확대하고 사회안전망을 더

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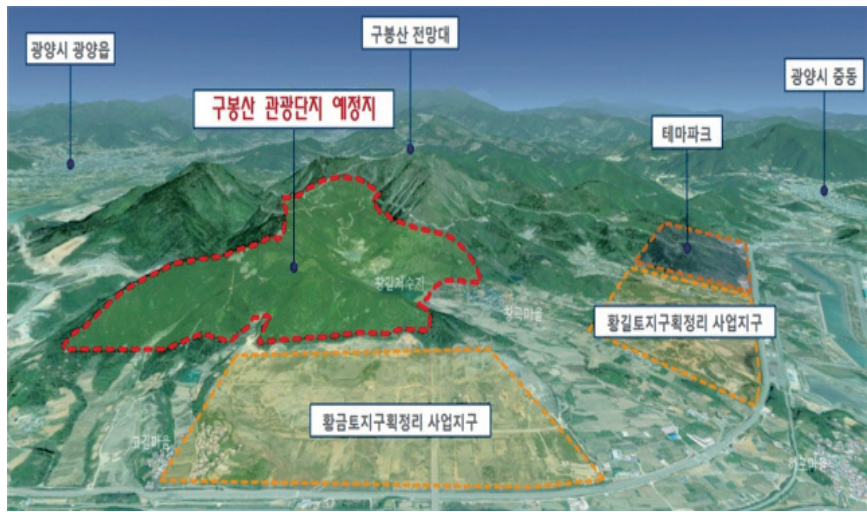
시민과 함께 누리는 체류형 관광·문화도시 기반도 확충한다. 광양 해비치로 5대 교량과 해변을 연결하는 야간경관 조명은 상반기에 선보이고 해비치로 수변의 공유수면을 확장해 여가·문화공간으로 만드는 달빛해변 조성사업도 추진한다. 백계산 동백정원과 동백 특화립을 조성하고 백운산 자연휴양림을 중심으로 한 맞춤형 산림복지·문화단지도 들어선다. 남해고속도로 섬진강 휴게소는 복합형 환승공원으로 확대해 관광거점으로 육성한다.

3월에는 도립미술관과 예술인들의 창작 공간인 광양예술창고도 열 계획이다. 성황·도이구는 주거와 문화, 복지, 휴식 기능을 갖춘 고품격 복합 주거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정 시장은 “코로나19도 우리의 대응능력에 따라 더 나은 미래를 앞당기는 기회가 될 수 있다”며 “시민들과 발을 맞춰 광양시의 미래를 창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광양시, 구봉산관광단지 조성 사업 본격화

전남도·광양시·LF 컨소시엄 2000억대 투자협약
...2024년 완공 예정



광양시(시장 정현복)가 구봉산관광단지 성공적 조성을 위한 안정적 추진 발판을 마련했다. <사진>

광양시는 지난 11월 26일 전남도와 광양시, LF 컨소시엄이 구봉산관광단지 조성에 관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당초 전남도청 서재필실에서 열리기로 했던 협약식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불가피하게 연기되었다가 비대면 서면 협약으로 진행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LF 컨소시엄은 광양시 황금동 산 107번지 일원 약 57만 평에 총 2000억원 규모를 투자해 숙박시설, 치유의 숲, 루지, 골프장 등 대규모 관광단지를 조성하고 300여 명의 고용을 창출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협약서에는 전남도와 광양시는 LF 컨소시엄의 성공적인 관광단지 조성을 위한 인·허가 등 행정적 지

원에 최선을 다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시는 이달 말부터 토지 소유권 이전을 위한 관련 서류를 제출받고 12월 중순부터는 토지매매대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내년 초까지 소유권 이전이 마무리되면 전남도에 관광개발 기본계획 및 권역계획 반영과 관광단지 지정을 위한 인허가를 신청하고 도시관리계획 변경, 교통·환경·재해·문화재 영향평가 등 각종 행정절차를 거쳐 2024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착공에 들어간다.

정현복 시장은 “전남 제1의 경제도시로서 고급형 숙박시설과 국내 최장 루지, 규모 있는 골프장 등을 갖추게 될 구봉산관광단지는 광양의 관광산업과 지역발전을 가속화하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광양시, 공모·시장 1천465억 확보 ‘역대 최대’ 성과

공모 102개 선정 1천458억·평가 33개 수상 상사업비 7억

광양시가 지난해 중앙부처·전남도 등 외부기관에서 실시한 각종 공모·시장 사업에서 135개 사업 1천465억원을 확보하는 역대 최고 성과

를 거뒀다. 이는 2019년 1천68억원 대비 397억원을 더 확보한 액수다.

정부·상급기관의 코로나19 대응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중심 공모사

업 선정이 증가하는 추세에 발맞춰 추진상황 보고회를 통한 사업 신속 발굴과 차별화된 전략 수립 등으로 의존재원 확보를 위해 총력 대응한 결실로 풀이된다.

주요 선정 공모사업은 ▲풍수해 생 활권 종합 정비사업 493억원 ▲일차

리 연계형 지원주택 사업 231억원 ▲어촌뉴딜 300사업(광영 도촌포구) 96억원 ▲공공건축물 리모델링 사업 96억원 ▲도시재생인정사업(광영 스포츠 콤플렉스) 83억원 등 총 102개 사업이 선정돼 1천458억원을 확보했다.

주요 시장 사업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2억원 ▲정부합동평가 우수기관 1억7천만원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 1억원 ▲지방재정분석 우수기관 5천만원 등 총 33개

부문에서 좋은 성과를 거둬 7억원을 확보했다.

광양시 관계자는 “지난해 공모 시장 사업에서 역대 최고의 성과를 거둔 것은 국비 총액 4천568억원을 확보한 결실의 일환이며 전남 제1의 경제도시로 도약을 위한 시민들의 열원 덕분에 가능한 일이었다”며 “올해도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라남도당

2021 코로나 극복 원년 함께 이겨냅시다

[새해 포부] 유근기 곡성군수

“아이·청년 중심 곡성형 창의교육, 교육자치 강화에 역점”

“새해는 건강한 인구 구조로의 출발을 위한 원년으로 삼아 아이들과 청년 중심의 정책을 강화해 보다 젊고 활력 있는 곡성으로 만들겠습니다.”

유근기 곡성군수는 “올해는 혁신 성장의 효과가 농업, 관광, 복지 등 전 분야에 확산 되도록 끊임없이 변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유 군수는 먼저 “곡성형 창의교육의 폭을 넓히고, 콘텐츠의 수준을 높여 ‘배움 중심 사회’를 열겠다”면서 “곡성미래교육재단이 출범해 학부모, 마을활동가, 청년 등이 함께 논의하는 교육 플랫폼을 구축해 교육자치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중장기 교육 발전계획을 수립해 자연, 생태, 문화, 역사 등 다양한 교육자원을 학교혁신과 마을교육, 곡성꿈놀자, 농촌유학 등으로 체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군은 3개 권역을 압축 도시화하고 교통망과 통신망으로 묶어 모든 지역을 중심으로 만들 계획이다.

관광객을 유입시키고 머무를 수 있도록 체류형·복합형 공간 조성을 목표로 지역 성장 전략 사업인 ‘스테이션1928’을 통해 숙박과 커뮤니티 공간 조성을 추진한다.

특히 석곡권을 시가지의 옛 감성을 되살리고, 건강한 생태를 활용하는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전국 면 단위 최초로 선정된 석곡면 도시재생 뉴딜사업 ‘석곡에서 살면돼지 reborn 1973’은 13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2024년까지 진행해 새로운 주거문화 복지공간 조성에 나선다.

대항강변 자연생태 체험관광지 사업을 통해 생태관찰로와 스카이가든 등 독특한 숙박공간을 조성하고 야간경관 조성사업을 더해 체류형 관광지로 만들 계획이다.

이와 함께 다함께 돌봄센터를 통한 아이 돌봄서비스 지원도 강화한다. 만12세 이하 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율을 20% 확대하고, 두 자녀부터는 전액 지원한다.

자연, 사람, 마을이 어우러지는 여행 콘텐츠를 강화해 섬진강기차마을에는 증기기관차 플랫폼을 구축하고, 장미정원을 넓



교통·통신망 3권역 압축 도시화 추진

‘생태자원 복원’ 그린뉴딜로
청정곡성 만들터

혀 경쟁력을 강화한다. 압록유원지는 다양한 모험과 체험활동이 가능한 상상스쿨로 조성하고, 가정역에는 새로운 문화공간 곡성 아트빌리지가 올해부터 본격 운영된다.

지속가능한 미래 특화농업 육성에도 적극 나선다.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친환경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과 곡성 디톡스 테라피 융복합 산업 시스템 구축과 70억원 규모로 해독·치유 거점센터를 구축하고, 가공식품과 테라피 체험관광 상품을 개발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생태자원의 복원과 보전으로 지역균형 뉴딜전략에 맞는 미래형 청정곡성을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유 군수는 “동약산 생태축 복원사업의 연내 착공과 섬진강 침식습지 훼손지 복원사업 또한 전담대, 관찰 탐방로 조성 등 사업을 본격 시행하겠다”면서 “섬진강과 보성강에는 국가하천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을 구축과 치수 안정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새해 포부] 김순호 구례군수

홍수피해 재발 방지, 배상, 4대 권역별 사업 추진

“지난 여름 40년 만에 구례를 덮치며 군민들의 생활 터전을 앗아간 홍수 피해의 재발 방지와 민간 피해 배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새해 첫 화두는 홍수 피해 보상에 따른 군민 삶의 복원이라고 밝혔다.

김 군수는 2000억 원 규모의 4대 권역별 사업과 자연 드림파크 2단지·3단지 조성 사업을 군의 핵심으로 꼽았다.

군은 지난해 이재민 대피소 운영, 재난지원금 지급, 공공기관 및 기업의 추가지원 확보, 손해사정인 용역 등 대민지원에 최선을 다한 가운데 각종 대외 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국회 미래연구원의 ‘대한민국 10대 행복도시’, 행정안전부의 ‘가장 살기좋은 도시’에 선정됐고 청렴도는 2019년 4등급에서 2020년 2등급으로 수직상승했다. 행정안전부의 혁신평가와 재정평가도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군은 공공시설 복구비 3536억 원 중 2184억 원을 개선복구(재발 방지) 사업에 투입할 계획이다.

서시천 등 지방하천 6곳과 소하천 5곳에 1073억 원을 들여 제방 높이를 최대 3m 이상 높이고 각종 구조물을 개선한다.

교량 54곳을 개축할 예정이며 1111억 원을 투입해 문척·간전·토지·마산에 배수펌프장 9곳을 설치해 침수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구례119안전센터를 구례소방서로 승격하기 위해 부지매입을 추진하고 가구마다 재난방송시스템을 설치해 재난 대응 능력을 높일 예정이다. 행정·소방·경찰이 함께 상황을 관리하는 통합 플랫폼도 구축한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자연 드림파크 2단지에 물류센터와 공방을 신축하고 3단지에는 치유와 힐링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가공·유통·판매를 원스톱으로 하는 180억 원 규모의 친환경 유기농업 복합타운 조성에도 박차를 가한다.



홍수피해 군민 삶 적극 복원에 총력

교량·구조물 등 공공시설개선, 치
유·힐링 클러스터 조성 추진

농업예산은 22% 이상 확대해 농민을 지원하고 구례읍, 섬진강, 화엄사, 지리산온천을 4대 권역으로 정하고 총 2000억 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구례읍은 정주 여건 개선과 시장 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생, 5일 시장 현대화 사업 등에 약 930억 원을 투자한다. 섬진강권역에는 약 590억 원을 투입해 스카이 바이크, 섬진강 힐링 생태공원 등을 조성해 체험관광객을 유치할 계획이다.

화엄사 권역에는 치유센터 조성, 반달가슴곰 체험장 확대 등에 210억 원을 투자한다. 지리산온천 권역에는 지리산 정원을 중심으로 집라인과 모노레일을 조성하는 등 약 440억 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 군수는 “수해 관련 6월까지 민간 대책본부와 협력해 원인규명과 100% 피해 배상을 요구하겠다”며 “올해는 희망찬 한해를 건설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곡성군 2021년 국고 예산 1788억 원 확보

석곡지구 용수개발, 침곡구성지구 하수도 정비 등 추진

곡성군(군수 유근기)이 2021년도 정부 예산 1788억원을 확보했다.

곡성군은 새해 정부 예산이 1788억원으로 확정돼 지난해보다 599억원 증가했다고 지난달 9일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석곡지구 다목적 용수개발에 필요한 사업비 230억원을 확보했으며 침곡, 구성지구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에도 67억 원을 투입한다.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사업과 하수관건 정비사업 등 신규사업에 필요한 예산 각각 7억원과 31억원을 확보했다.

곡성군은 정해박해 평화순례길 조성 121억원, 고압전선 국제상호인증 평가기반 구축사업 144억원, 섬진강 침식습지 훼손지 복원사업 160억원, 곡성, 옥과지구 하수관개 정비사업 85억 원을 확보했다.

구례군 청렴도평가 종합 2등급...‘청렴의식 제고’ 결과물

지난해 4등급에서 2단계 수직 상승

구례군(군수 김순호)은 국민권익위원회 723개 공공기관 대상으로 진행한 ‘청렴도 평가’에서 최근 5년간 받았던 평가 중 최고 등급인 종합 2등급(8.37점)을 받았다고 지난달 9일 밝혔다.

구례군은 전남지역에서 5위를 기록했고, 지난해 종합 4등급(7.28점)에서 두 단계나 수직 상승했다. 구례군은 청렴한 행정을 위해 매주 2회 업무개시 전 청렴방송 청취의 날을 운영했다. 공사와 관련된 공직자의 부정부패 예방을

위한 주기적인 청렴문자, 서한문 발송을 통해 청렴 의식을 제고했다.

수년간 하위권을 맴돌던 구례군의 청렴도 평가가 수직 상승한 이유는 민선 7기 출범 이후 강도 높은 ‘반부패 청렴 정책’을 집중적으로 실시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김순호 군수는 “청렴도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부패 예방 노력이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군민에게 봉사하는 청렴한 구례군으로 거듭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 제3차 피해지원금 지급! (11일~)
고용취약·소상공인 396만명 5.6조원

더불어민주당
전라남도당

신년사



진 수 화

광양시의회 의장

존경하는 순천 광양 곡성 구례 주민 여러분과 당원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1년 신축년(辛丑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의 불안과 혼란 속에서 우리는 고통을 이겨내며 위기극복을 위해 함께 노력해왔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며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침체된 지역경제와 주민 여러분께 힘이 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당원동지들과 연대하고 협력해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 창출에 힘을 모으겠습니다.

당의 일원으로서, 지역발전과 지역민의 행복을 위해 ‘생각을 한 군데 집중하면 쇠나 돌도 뚫을 수 있다’는 금석위개(金石爲開)’의 자세로 땀 흘려 일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올 한해도 소망하시는 모든 일 이루시고 여러분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정 인 균

곡성군의회 의장

다사다난 했던 2020년이 지나고 2021년 신축년(辛丑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1년 신축년 새해는 “흰 소의 해입니다. 예로부터 흰 소는 근면과 신의, 인내와 정직의 상징이었습니다. 흰 소가 우리에게 주는 긍정과 희망의 메시지를 아로새기며 새롭게 떠오른 새해를 맞이했으면 합니다.

코로나 팬더믹을 통해 인류는 공생과 공존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뢰와 협력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는 모두가 빠짐없이 서로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국민의 염원속에서 촛불혁명으로 새롭게 탄생한 더불어민주당의 꺼지지 않는 의지는 이러한 상황을 헤쳐 나갈 것이며, 저 또한 곡성군의회 의장으로서 미력이나마 위기극복을 위해 헌신에 힘을 다할 것입니다.

새해에는 코로나19의 종식으로 다시 새롭게 찾는 평범한 일상속에서 국민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하길 소원합니다.



유 시 문

구례군의회 의장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 성취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지난해 7월, 제8대 후반기 구례군의회는 새롭게 의장단을 선출했습니다. 낯은 관행은 과감히 버리고 군 발전에 앞장서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32년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되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강화되었습니다.

주민중심, 지역중심의 새로운 자치분권 시대를 여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책임있는 의정활동을 통해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구례군은 역경과 아픔을 겪은 가운데에도 미래를 도전하고 준비해야하는 새로운 시발점에 서 있습니다. 사상 초유의 물난리로 군민들이 받은 고통을 치유하고, 수해피해 배·보상 문제가 빠른 시일내에 해결되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주민의 목소리가 군정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의회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광양시의회, 제294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새해 예산안 1조129억 의결, 21건 안건 처리

광양시의회는 제294회 제3차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2020년 회기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는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례안과 일반·동의안을 처리하고, 포스코 산업재해 대책 마련 성명서를 채택했다.

또한 (재)광양시어린이보육재단

2021년 예산 출연 등 6건의 동의안과 공공시설 건립과 설치계획안 7건을 포함해 일반·동의안 21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조례안에는 광양시장이 제출한 공무원 정원 41명 증원과 3개과 신설을 담은 '광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과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백성호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양시 농어민 공

익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6건이다.

지난 18일 예결특위는 시가 제출한 2021년 예산안 1조 129억원 중 80억여원을 삭감·수정했다. 2021년도 광양시 예산은 올해보다 373억원(3.5%)이 감소한 1조 129억원으로 일반회계 8019억, 특별회계 2110억원이다.

진수화 의장은 “지난 9일 지방자치법 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며 “풀뿌리 민주주의의 가치 실현을 위해 투명한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광양시의회,

“포스코 산업재해 대책 마련하라” 성명



광양시의회는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발생한 폭발사고와 관련해 “포스코는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

해 원인을 밝히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난달 21일 촉구했다. <사진>

광양시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포스코 산업재해 대책 마련 성명서를 채택하고 “광양 시민들은 계속되는 포스코의 중대 산업재해 발생에 대해 깊은 우려와 함께 조속히 안전한 사업장이 되길 염원한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이어 “포스코의 재발 방지 약속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산업재해 발생에 대해 심각한 상황으로 인식한다”며 “확실한 재발 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광양제철소에서는 지난달 24일 1고로 지역에서 노후한 산소발전설비 철거를 위해 산소 배관 차단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해 노동자 3명이 숨졌다.

구례군, 혁신평가 2년 연속 ‘우수기관’

섬진강 수해 복구결손가정 집짓기 등 호평

구례군은 5일 “행정안전부의 2020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자치단체 혁신평가는 전국 243개 지자체의 지역 혁신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는 것으로 국민평가단을 공개 모집해 전문가 평가단과 함께 평가를 진행했다.

구례군은 ▲협업을 통한 섬진강 수해 복구 ▲결손가정을 위한 만원으로 집짓기 프로젝트 ▲결식아동제로 행복두끼 프로젝트 ▲

지역 주민과 함께 한 코로나19 공동방제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민·관 협력을 통해 추진한 혁신 사례를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또한 군민의 정책 참여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 정책소통플랫폼 ‘구례소통마루’를 신설하는 등 창의적인 혁신정책 추진으로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구례군은 혁신평가가 도입된 2017년부터 총 세 차례나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지방자치 혁신행정 선도 지자체로 평가받고 있다.

곡성군, 전남도 2020년

지역경제활성화 우수상 수상

곡성군(군수 유근기)은 전남도가 주관한 2020년 지역경제활성화 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곡성군은 이번 평가에서 코로나19로 경영위기에 처한 소상공인 지원시책을 대폭 확대했으며 환경개선 지원, 카드수수료 지원, 소상공인희망센터 개소 등 13가지의 소상공인 지원시책을 추진해 높

은 점수를 받았다.

전통시장 내 유희점포를 청소년 진로체험공간을 재탄생시켰으며 모바일상품권의 확대 운영을 위한 조례개정 등 제도를 정비했다.

이 밖에도 모바일상품권 가맹점 확대와 다양한 이벤트를 펼쳐 21억원을 판매하는 성과를 거둬 좋은 평가를 이끌어 냈다.

구례군 “수해복구 추진상황 공개…투명성 높이겠다”

복구비 3657억원 투입

구례군은 25일 “2020년 수해복구 추진상황을 상세히 지역주민에게 알려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군은 “2020 수해복구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라는 자료를 통해 정

부와 기관단체 지원금 3657억원을 투입해 사유시설 지원 및 공공시설을 복구할 계획이다.

구례군은 지난해 8월7일부터 이틀간 4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져 섬진강과 서서천 범람으로 가옥과 상가 등이 침수되고, 1807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으며, 1149명의 이재민이

발생하는 피해를 입었다.

그동안 응급복구를 통해 이재민 1149명을 구호하고 공공시설 292개소와 사유시설 1878개소를 복구했다.

이를 위해 굴삭기 등 장비 261대가 동원됐으며, 전국에서 공무원, 소방, 군인, 경찰 등 1만5400명이 동원돼 자원봉사자 1만1000여명과 함께

구슬땀을 흘렸다.

복구비는 총 3657억원이 확보돼 사유시설에 대한 지원금을 120억원 지급했다. 이 가운데 구례군이 직접 지원한 금액은 20억원이며, 재난지원금은 100억원이다. 이같은 수해주민 지원은 자연재난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지급기준에 의해 지원됐다.

농축산 분야의 경우 7개 지원기준에 따라 100만원에서 최고 5000만원

까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지원했다.

공공시설 복구비는 3536억원으로 도로 및 하천, 상하수도시설 원상복구에 1176억원이 투입되고 지방하천고 소하천, 배수펌프장 개선복구에 2183억원 등이 투입될 예정이다.

군은 주택 및 상가, 농축산시설, 개별 상하수도에 대해서는 지원을 완료했으며, 도로, 하천, 배수펌프장 등 공공시설은 오는 2023년까지 복구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용재 도의원, 노동인권교육 조례안 대표발의



이용재 도의원(광양1)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지난달 10일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노동현장에서 필요한 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의 권리적 측면을 강조하는 기존 조례안에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향을 포괄하는 개념을 담았다.

이용재 의원은 "많은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나 취업을 통해 노동환경을 접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노동인권교육에 대한 정립이 미흡하다"며 "노동의 권리적 측면에서 탈피해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을 부각시켜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인재를 육성하는 노동인권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오는 16일 열리는 전남도의회 348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김태균 도의원, 육아돌봄 국가·지방정부에서 책임져야



김태균 도의원(광양2)은 인구청년정책관에 대한 예·결산심사에서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획기적인 정책과 방안을 강구하라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출산율은 2019년 기준 0.92명으로 전 세계 출산율 꼴찌로, 정부에서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으로 수많은 예산에도 백약이 무효로 여전히 세계에서 최저 출산율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

전남 역시 합계출산율은 역대 최저치인 1.23명이고, 출생아 수는 2015년 1만 5061명→2016년 1만 3980명→2017년 1만 2354명→2018년 1만 1238명→2019년 1만 832명으로 5년간 4229명이 감소하는 등 인구 감소 문제가 큰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다.

김 의원은 "출산장려금 정책도 중요하지만 출산 후 아이돌봄 정책으로 육아돌봄을 정부나 자치단체에서 부모들이 안심하고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부모 맞춤형 종일돌봄은 물론 초·중·고 대학까지의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정책을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김길용 도의원, 청년친화 우수의원 대상 수상



김길용 도의원(광양3)이 제4회 '대한민국 청년의 날' 행사에서 2020 청년친화 헌정대상 '우수 광역의원 종합 대상'을 수상했다.

청년친화 헌정대상은 매년 청년들을 위한 정책과 입법, 소통 분야에 공헌한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 광역의원을 선정한다. 국회사무처 소관 사단법인 청년과미래 청년친화 선정위원회가 심사·발표한다.

김 의원은 청년들을 위한 다각적인 입법정책과 소통으로 청년들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등 의정활동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청년취업 지원과 청년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등 안정적인 삶의 자양분 역할을 할 수 있는 정책 대안 제시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 의원은 "청년들은 일자리 부족과 청년정책 실효성 미비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크게 느끼고 있다"며 "앞으로도 젊은 도의원으로서 청년들과 함께 소통하고 미래의 꿈을 실현시키는 의정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이상철 도의원, '제4회 무등 의정대상' 수상



이상철 도의원(곡성)이 지난달 10일 홀리데이인 광주 호텔에서 열린 '제4회 무등 행정·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지역발전부문' 의정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한국거버넌스학회와 무등일보가 공동 주관하는 '무등 의정대상'은 참신한 의정 활동과 지역사회발전에 공헌한 의원들을 격려함으로써 풀뿌리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수여하는 상이다.

이 의원은 제11대 도의회 개원 이후 전반기 농수산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후반기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섬진강·영산강수계호우피해 실태과악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지역민의 입장을 대변하고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한 '전라남도 유기농 생태마을 육성 및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하는 등 농어촌문제에 대한 깊은 관심과 해박한 지식으로 각종 지원정책 발굴과 대안 제시에 앞장서 온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 의원은 "한층 더 성숙된 모습으로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 발전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이현창 도의원, 전남형 스마트 전통시장 예산 5억 확보



이현창 도의원(경계관광문화위원장·구례)은 지난달 10일 2021년 본예산에 스마트 전통시장 구축 시범사업비 5억(도비 50%, 시군비 50%)을 확보했다.

'전남형 스마트 전통시장 구축'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비 트렌드가 비대면 판매로 전환되어 전통적인 판매 방식에 의존하고 있는 전통시장과 지역상권의 침체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된 사업이다.

이번에 확보한 예산은 전통시장의 온라인 쇼핑몰을 구축하고 시장별 입점을 추진하며 전통시장별 전담 매니저를 배치해 시장의 전문적인 상품관리 등 온라인 마케팅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전남형 스마트 전통시장 구축으로 언택트 마케팅을 시행함에 따라 IT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플랫폼 운영을 통해 전통시장의 비대면 판매 계기를 마련하고 전통시장의 활성화에 힘을 더해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의원은 "전남형 스마트 전통시장 시스템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역경기 악화로 위기를 겪고 있는 전통시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온라인 판매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옥님, '여학생 위생용품 수박 곁핥기식 지원'



정옥님 의원(비례)은 최근 열린 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남도교육비특별회계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여학생 위생용품의 수박 곁핥기식 지원'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정 의원은 그동안 5분 발언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여학생 위생용품 지원을 촉구했으며, 재정 지원 근거마련을 위해 '전남도교육청 여학생 위생용품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그러나 도교육청 예산안에는 여학생 위생용품 지원에 1인당 연 7천원만 편성됐다.

당초 여학생 위생용품 지원으로 구분돼 있던 사업을 내년도 예산안에는 기본운영비로 통합하기도 했다.

이에 정 의원은 "이 사업의 목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당초 사업명으로 편성해야 한다"며 "학교 내 위생용품 비치 장소 또한 보건실이 아닌 화장실에 뒀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전남도 관계자는 "위생용품은 보건실이 아닌 화장실에 비치하고, 위생용품 지원에 부족한 예산액은 추경에 적극 편성하겠다"며 "예산담당부서와 협의해 사업명은 '위생용품 지원'으로 따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곡성군미래교육재단, '사람과 미래를 잇는 즐거운 교육도시' 선포선포



곡성군미래교육재단이 최근 '출범 및 비전선포식'을 갖고 재단의 비전을 '사람과 미래를 잇는 즐거운 교육도시'로 선포했다.

곡성미래교육관에서 열린 출범식에는 장석웅 전남도교육감을 비롯한 곡성군의회 정인균 의장, 도의회 유성수 교육위원장, 도의원, 군의원, 기관사회단체장, 주민자치위원장 등 40여 명이 함께했다.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해 유튜브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됐으며 재단 이사장인 유근기 군수가 비전 선포와 재단의 핵심가치 등을 직접 브리핑했다.

유 이사장은 브리핑에서 "지방소멸 위기 극복은 '교육만이 희망'이라고 보았고, 양질의 교육으로 지역 회생을 이끄는 원동력을 만들기 위해 재단을 설립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단의 비전은 120인 원탁토론, 815명이 참여한 설문조사 등을 통해 선정되어 군민의 뜻이 고스란히 녹아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사람이 모이는 곡성의 행복한 성장을 위해 '사람과 미래를 잇는 즐거운 교육도시'를 만들 것임을 선언하고 ▲창의 혁신 ▲연대와 협력 ▲함께 성장 ▲지역활력 등 4대 핵심가치를 내세웠다.

핵심가치 실현을 위한 3대 목표는 ▲지속가능한 교육가치 실현 ▲연대와 협력을 통한 지역교육력 강화 ▲혁신적인 교육가치 실현으로 세웠다.

한편 재단은 2021년도에 곡성교육의 정확한 실태조사와 함께 학교 교육 뿐만 아니라 가정, 사회교육까지 모두 포함된 종합적인 5개년 계획을 수립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